

# 전주시, 7대 핵심과제 실행력 높인다

### 33개 주요사업 부서별 추진계획·단계별 로드맵 수립

전주시가 전주를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7대 핵심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전주시는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인 '7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각 부서별 추진계획 및 단계별 로드맵 작성, 재원마련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7대 핵심프로젝트는 △독창적 문화 예술도시 전주형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 △제2의 한옥마을, 미래유산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문화특별시로 도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

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 △중소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금융창조 프로젝트 추진이다.

7대 핵심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시는 각 부서별 추진 계획 수립과 단계별로드맵을 마련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 부서별 주제의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사업 실행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사업을 100대 핵심과제에 반영해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

난 6일 민선6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6기 하반기 시정운영방향으로 전주시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7대 핵심프로젝트로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도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2개 분야를 제시하며, 민선6기 후반기의 성장엔진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3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 문화의 보존·계승 및 창조적 발전을

통해 지역 문화산업을 일으키고, 문화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도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4개 프로젝트는 지역의 청년들이 희망의 전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7대 핵심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 주요사업별 단계별로드맵 수립과 재원마련 방안, 재정사정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꾸준한 점검을 통해 주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삼계탕 한그릇을 먹기 위해 초복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오후 시내 한 삼계탕 전문점을 찾은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 '미승인' 오일펜스 납품업체 딜미

승인받지 않은 불량 오일펜스를 납품하던 업체가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새로 제작한 오일펜스에 구형 합격도장을 임의로 부착해 군산항 입수기업에 납품한 부산광역시 소재 A사(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를 입건했다.

오일펜스는 바다에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방제자재로 제작과정에서 정량적 기능과 형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는 검사기관이 형식승인을 한 이후 납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업체는 군산시 소재 항만입수기업의 주문을 받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검사기관의 의뢰 없이 이미 합격 받은 구형 합격도장을 임의로 부착하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군산해경이 최근 국가안전대진단 해양시설 점검 과정에서 항만입수기업에 보유한 오일펜스가 제작일시와 합격도장 규격이 다른 점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경은 납품한 오일펜스 전량을 반품처리하고 제작업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납품한 곳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해양 오염사고 피해를 줄이는 방제자재가 허술한 제작관리로 부적격 제품이 현장에서 사용됐을 때,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식승인 절차 방제자재 등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 술집서 폭행 혐의 일당 검거

고창경찰서는 지난 15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상해)로 박모(22)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3시40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식당에서 A(25)씨 등 2명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3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창읍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폭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술을 마시는데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안진수 기자

## 교도소 출소 2달 안돼 절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2달도 안돼서 다시 절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5일 심야시간대 약국만 노려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특수절도)로 정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5분께 전주 덕진구 금암동 한 약국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다 마침 약국 안에 있던 관리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달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경남 통영시, 창원시, 전주시 약국 3곳에서 총 3회에 걸쳐 현금 44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 전주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 폭염예방수칙 적극 홍보

전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보건소(소장 김경숙) 방문보건센터는 홀로거주 어르신 등 관내 의료취약계층 5262가구(5421명)를 대상으로 33개동 지역 담당 간호사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 만성질환성질환관리, 건강행태 개선, 재가안환자 건강증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방문보건센터는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시작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여름철 폭염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문보건센터 방문간호사들은 현재 대상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 부채를 제공하고, 폭염예방 건강수칙 교육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폭염 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에는 문자발송과 안부전화, 가정 방문 등을 실시하고, 경로당 방문 교육을 통해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무더위 쉼터 위치 및 이용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보건소장은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무더운 날씨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 활동의 강도를 조절하고 야외활동을 삼가고 외출 시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 아파트 복도서 흥기난동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을 흥기로 살해하려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군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21일 오전 9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마주친 B씨(34)를 흥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B씨가 도망가자 복도 유리창문 2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신변을 비판한 이군은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흥기를 집어 들고 나선 직후 우연히 마주친 B씨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지난 2000년 어머니가 부부싸움으로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고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불만에 삶을 비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1심에서 징역 3년, 단기 2년6월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군이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감안해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항소심 선고공판 이전에 생일이 지나 소년의 범주에서 벗어난 점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A군에게 2년6월의 징기형을 다시 선고했다.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따라 원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인미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살인미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